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中 위안 가치 하락세 멈추기 어려울 것
- ◇ (분석)-英 의회 vs. 총리,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을까?
- ◇ (칼럼)-원화 약세가 반가운 이유
- ◇ (초점)-위안 변동성에 취약해진 원화..삼전 배당 · MSCI 리밸런싱에 '태풍전야'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상가 환전상에 위안과 달러 상징이 표시된 간판이 걸려 있다. (로이터/알리 송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9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18(%)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18(%) |
|---------|----------|--------|---------|----------|------------|-----------|--------|---------|----------|
| 달러 대비 | 1,210.5 | -1.0% | -7.8% | -4.1% | 유로 | 1.1198 | 0.8% | -2.4% | -4.4% |
| 100엔 대비 | 1,148.1 | -1.6% | -11.5% | -6.9% | 엔 | 105.66 | 0.9% | 3.7% | 2.8% |
| 유로 대비 | 1,358.8 | -1.5% | -6.0% | 0.2% | 위안 | 7.0455 | -2.1% | -2.4% | -5.3% |
| 위안 대비 | 171.79 | 1.0% | -5.8% | 1.3%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8(%)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8(%) | 다우존스 | 26,287.44 | -0.7% | 12.7% | -5.6% |
| 코스피 | 1,937.75 | -3.0% | -5.1% | -17.3% | 나스닥 | 7,959.14 | -0.6% | 20.0% | -3.9% |
| 코스닥 | 590.04 | -4.2% | -12.7% | -15.4% | S&P500 | 2,918.65 | -0.5% | 16.4% | -6.2%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8(bp) | MSCI APxJP | 490.34 | -2.7% | 2.8% | -16.2% |
| 국고채 3Y | 1.186% | -7.4bp | -63.1bp | -31.8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8(bp) |
| 국고채 5Y | 1.225% | -6.5bp | -65.9bp | -45.9bp | 미국채 2Y | 1.649% | -6.1bp | -84.9bp | 60.7bp |
| 국고채 10Y | 1.286% | -6.3bp | -66.2bp | -52.1bp | 미국채 10Y | 1.745% | -9.9bp | -94.6bp | 28.0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18(%)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18(bp) |
| 유가(WTI) | 54.50 | -2.1% | 20.0% | -24.8% | 한국 5Y | 31.37 | 2.63 | -6.69 | -13.74 |
| 금(현물) | 1,496.84 | 3.9% | 16.7% | -1.5% | 일본 5Y | 21.75 | 2.12 | -0.04 | -3.34 |
| TR상품지수 | 2,282.73 | -1.2% | -3.7% | 0.0% | 중국 5Y | 50.09 | 5.05 | -16.38 | 16.96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 월 12 일(월)>

- 관세청, 8 월 1-10 일 수출입

<13 일(화)>

- 한은, 6 월 통화 및 유동성·7 월 금융시장 동향 (12: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14 일(수)>

- 한은, 7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통계청, 7 월 고용동향(08:00)

<15 일(목)>

- 공휴일

<16 일(금)>

- 기재부, 8 월 최근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 월 12 일(월)>

- 일본, 태국, 싱가포르 휴장

<13 일(화)>

- 미국, 7 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7 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7 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미국, 7 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1:30)

<14 일(수)>

- 일본, 6 월 기계주문 (08:50)
- 중국, 7 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7 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7 월 소매판매 (11:00)
- 유로존, 2 분기 GDP 잠정치 (18:00)
- 유로존, 6 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 마켓지수 (20:00)
- 미국, 7 월 수입/수출 물가 (21:30)

<15 일(목)>

- 중국, 7 월 주택가격 (10:30)
- 일본, 6 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8 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8 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2 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1:30)
- 미국, 7 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7 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6 월 기업재고 (23:00)
- 미국, 6 월 소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8 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16 일(금)>

- 유로존, 6 월 무역수지 (18:00)
- 미국, 7 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7 월 주택착공 (21:30)
- 미국, 8 월 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원화는 지난주에 이어 약세 변동성에 취약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예상 범위는 1205-1225 원이다.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
- 달러/위안이 7 위안을 넘어서면 이후 중국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로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듯하지만, 위안 추가 절하 가능성을 두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만큼 원화의 추가 약세 수준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 물론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의 약세 변동성 확대를 크게 우려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경로를 벗어난 현 상황에서 원화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 특히 G2 양국이 환율정책을 통해 대립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리와 국내 주식, 환율 움직임에 연동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내외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지난 주말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악화, 금리 급락, 금리 급락에 따른 조기 경기 침체 경계심리로 인한 주가 하락, 금리 반등과 주가 반등 패턴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관측됐다.
- 뉴욕 증시는 주초 급락 후 3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주초 대비 12bp 하락하긴 했지만 역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펼쳐 놓을수록 뉴욕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국내 금리는 당분간 소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나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을 깬 후 소강 흐름을 보이는 것과 결을 같이할 전

망이다. 한은 금통위가 긴급 금리인하를 결행할 상황까지 국내 경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강해질 유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中 위안 가치 하락세 멈추기 어려울 것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 (로이터) - 중국은 위안 가치 하락세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주 위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 위안 위로 상승했다. 약간의 절하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둔화는 위안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인민은행은 어떻게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무역 긴장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고전하고 있는 수출 부문을 지원하고 금리를 인하할 준비를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모든 중국 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금, 중국인민은행은 위안 가치 하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다.

문제는 위안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이다. 중국 정부는 아마도 자본 유출을 촉진하지 않고 더 완화된 통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달러당 7.1~7.3 위안 정도의 더 약한 환율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도입된 3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에도 부진한 반응을 보인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완화가 필요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에 투입된 유동성 역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공식 제조업 활동은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수축되었으며, 수입은 2019년 1~7월까지 7개월 중 6개월 동안 감소하며 내수 부진을 시사했다.

월요일, 중국인민은행은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칭찬했다. 관리들 또한 부실 채권을 줄이고 실제 신용 상태를 완화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치하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이들 둘 모두가 지속될수는 없다. 최근 정치국 회의의 성명에서 디레버리징을 강조하는 문구는 삭제

됐다. 정부가 현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워진다.

위안 가치가 10% 이상 하락하면 교역 상대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위안 하락세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더 높은 정책 장벽을 세우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해외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의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절하는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영향을 완화시킨다. 이와 동시에 절하는 일본과 독일과 같이 안전한 통화를 가진 수출 강국들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모든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위안 환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위안을 얻는다.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분석)-英 의회 vs. 총리,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을까?

런던 (로이터)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두고 의회와 일대일 대결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존슨 총리는 만약 유럽연합(EU)이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거부하면 10월 31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그를 저지할 계획이다.

아래는 예상되는 움직임과 그 대응이다.

◆ 조기 선거

근소한 표차로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존슨 총리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

조기 선거를 통해 의원들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EU 탈퇴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법률상 존슨 총리는 어떤 종류의 선거든 EU 탈퇴가 예정된 10월 31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 대체 정부

만약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지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위한 14일의 시한이 주어진다.

만약 존슨 총리에게 반대표를 던진 다수가 대체 정부를 구성한다면 이들은 브렉시트를 10월 31일 이후로 연기하려고 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선거법은 2011년에 도입되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이 법은 14일 시한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14일 간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를 규정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존슨 총리는 사퇴할 의무가 없으며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겠다고 결정한 후 선거를 10월 31일 이후로 미룰 수 있다.

◆ 존슨 총리가 사임을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의 법과 관례를 정리한 문서에 따르면 14일 시한 동안 총리는 하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대체 정부는 신뢰를 받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6-2012년 동안 법률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수장을 맡은 스테판 로스는 영국의 불문 헌법에 작성된 대부분과 같이 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력에 종속적이고, 법원을 통해 집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상을 임명하고 기술적으로 그를 해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왕족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관습이 없어질 것이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목적만으로 구성된 정부가 진정한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사임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적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은 의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JP 모간은 노트에서 "대안이 확실할 때 불신임 투표 후 존슨 총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결국 결론은 헌법적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JP 모간은 "존슨 총리의 총리직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의원들은 이를 위해 행동하고 누구로 대체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률 개정

존슨 총리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의원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의회 규칙은 유연하며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브렉시트 반대자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례를 깨고 있다.

의원들은 올해 초 성공적으로 이뤄냈듯이 의회 의제를 장악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버논 보다노르 킹스칼리지 런던 헌법 전문가는 "노딜 브렉시트는 단순히 의회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가디언 지에 기고했다.

법률 개정은 존슨 총리가 EU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게 하거나, 노딜 브렉시트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다른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일정은 빠듯하다. 의회는 10월 31일까지 제한된 기간 이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는 반대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통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칼럼)-원화 약세가 반가운 이유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먼저 고백부터 해야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년 동안 달러/원 환율이 오를 때마다 필자도 '한국 금융시장 또 위기 오나'류의 기사를 자주 쓰곤 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달러의 위력과 신흥국으로서 한국의 한계를 절감한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니었다. 시장의 달러들도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라 치면 안절부절 못하며 리스크 익스포저를 줄여나갔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2012년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JP 모간체이스의 런던 지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7조 원의 손실을 낸 일명 '런던 고래 사건'을 기점으로

로 환율 상승과 외화자금시장 불안의 연계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 대형 이벤트를 겪으면서도 국내 시장은 한 번도 '위기'로 명명될 만큼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제기된 2013년, 중국 증시 불안과 위안화 가치 급락이 겹쳤던 2016년에 큰 파도가 몰려 왔지만 이 때도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위기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꺼낸 2013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미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는 16.43%,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9.80%, 말레이시아 링깃과 필리핀 페소가 각각 8.73%, 7.44%씩 절하됐지만 당시 원화는 오히려 절상됐다. 중국 증시가 무너진 여파로 2016년엔 2월에 달러/원 환율이 1245.30 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역시 외국인 자금 유출은 없었다.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는 지속됐다. 스왑베이스 역시 큰 움직임이 없었다.

▲韓 금융시장 환골탈태..달러 담보 규제+경상수지 흑자

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환골탈태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이후 국내은행의 달러 리스크 익스포저가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 검색이 나타난 2008년 당시 국내 금융시장을 더 취약하게 한 건 국내은행들의 고인 스왑 포지션이었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위험의 최고 감내 수준인 스레시홀드를 설정한 후 시가평가 변화에 따라 적격담보물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당시에는 적격담보물이 상당 부분 달러 자산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니 국내은행들 입장에선 달러 담보의 추가매입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외화 유동성과 관련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국내은행의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부각됐고 달러 조달은 더 어려워졌다. 외국계 은행들은 헤어컷을 요구하고 국내은행들은 다시 달러 담보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2008 년 이후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의 달러 담보 거래를 제한하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겼다. 이후에는 막상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겨도 국내은행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막혔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시장참가자들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단기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됐고 이러다 보니 달러/원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자기실현적인 패닉장으로 연결되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위기 패턴이 사라진 것이다.

▲ 환율 오르지만 달러 유동성 문제 없어

현재 상황은 어떨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까지 겹치며 달러/원 환율이 2016 년 이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니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금융시장 드디어 위기 오나'류의 기사를 다시 쓰기엔 이전과 비교해 딱히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다. 달러 자금시장에는 별다른 이상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외국인의 현,선물 채권 매수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통화스왑(CRS) 3 년 이상 테너에서 마이너스 비드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이상 신호다. 스왑 베이시스가 80bp 대로 평시보다 크게 확대되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CRS 2,3,5 년 금리가 0.2%대라는 걸 감안하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애매하다. 이정도 환헤지 프리미엄에도 생각만큼 재정거래 비드가 강하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CRS 1 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던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 오퍼를 하는 곳들은 달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물량을 처리 안하면 큰 일 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실제로 비드를 해야 할 곳들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오퍼하며 손절을 유도하려고 한다. 심리가 몰려 있는 상태에서 FX 스왑포인트가 놀릴수록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와 수급의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초점 맞춰야..환율 상승 자연스러워

진짜 문제는 수출이다. 경상수지 흑자다. 달러 공급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근간이 되는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다.

수출은 작년 12 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7 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결정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수출이 줄고 있다는 건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날 공개된 7 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3% 내외인데 가계와 정부는 증가한 반면 법인은 5.3%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호황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는 두 자리수 마이너스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 감소는 성장을 전망 하락으로 이어진다. 주식의 '퍼포먼스'라는 건 결국 성장률의 함수인 만큼 수출 부진은 한국 주식의 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회수는 결국 저성장 국가에서 상대적인 고성장 국가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볼 수 있다. 서든 스탑(SUDDEN STOP)성 대규모 자본유출과는 다른 형태의 이탈이다. 원화채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그 증거다.

결국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은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수출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당장 외국인 자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오히려 국내 경제에 선물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환율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외환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다. 환율의 레벨이 아니라 변동성이 문

제라는 것, 시장 쏠림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이 전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자기실현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국자들의 우려도 이해는 간다.

다만 1992년 검은 수요일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은 빠질 만큼 빠진 후 올라온다는 것이다. 1992년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 약세에 베풀었던 조지 소로스에게 항복하며 파운드화 가치 절하라는 항복 선언을 했지만 이 결정이 이후 영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단초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국내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 상승이 사실은 반가운 이유다.

(초점)-위안 변동성에 취약해진 원화..삼성전자 배당 **· MSCI 리밸런싱에 '대풍전야'**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8월 들어 원화 절하 폭은 깊어지고, 절하 속도는 빨라졌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에 원화 절하 행진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당장 맞닥뜨린 수급 변수는 만만치 않다.

지난 6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로 급락했고, 올해 들어 원화 절하 폭은 9%에 이르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가 되는 듯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거친 불협화음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예고, 중국인민은행의 달러당 7위안 허용,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표출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공포에 출렁였고, 원화 또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원화는 위안화와 보폭을 같이하며 변동성을 확대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0일간 위안화(CNH)와 원화의 상관도는 0.98 수준이다. 이에 김희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원화의 위안화에 대한 과도한 동조화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 보고서에서 '달러 블록'에서 '위안화 블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원화는 위안화 블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 경로에 위안화 방향과 변동성이 그대로 노출돼있는 만큼 원화 전망도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원화는 녹록지 않은 수급 변수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있다.

▲ 삼성전자 분기 배당 · MSCI 리밸런싱..환시, 수급 경계령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연일 순매도를 이어갔고 그 규모는 7일까지 1.4조원에 달했다. 지난 5월 2.5조원 규모의 국내 유가증권을 대거 순매도한 외국인들은 6월 0.7조원, 7월 2조원 규모를 사들였다. 하지만 8월 들어서는 뚜렷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패시브 자금 외인 매도세가 집중된 가운데 1조원 가량 빠져나갔고, 전체 외인 순매도 규모에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7300억원을 순매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2분기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금 총액은 2조 4046억원으로 이중 외인 배당은 약 1.48조원으로 추산된다. 7일 매매기준율(1214.50원)을 적용하면 약 12억달러 규모의 달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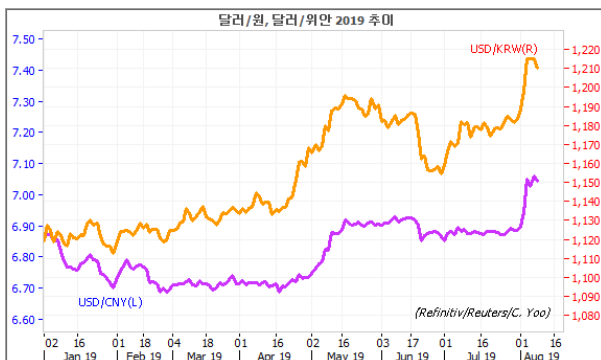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을 전후해서는 환율이 이와 관련된 수급에 영향받으며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인 외인 주식자금 이탈 압박까지 확대되고 있어 원화 약세 변동성은 재차 자극될 여지가 높다.

한편 벤치마크 제공 회사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7일(현지시간) 신흥국지수 변경 결과를 발표했다.

석 달 만에 MSCI 리밸런싱 관련 수급 악재가 불거져 이에 따른 경계령이 내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약 1.5조원의 외인 매도세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SCI 신흥국지수 변경이 있었던 지난 5월 코스피는 외인 대규모 매도 압력에 7.3% 급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간 낙폭 기준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로 속절없이 추락할 만큼 악재에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수급 변수는 분명 악재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는 6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긴장 가운데 있는 원화에 대한 추가 악세 룬은 있다면서 최근 전개 상황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자금 유출이 일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은 1250-1260 원 선으로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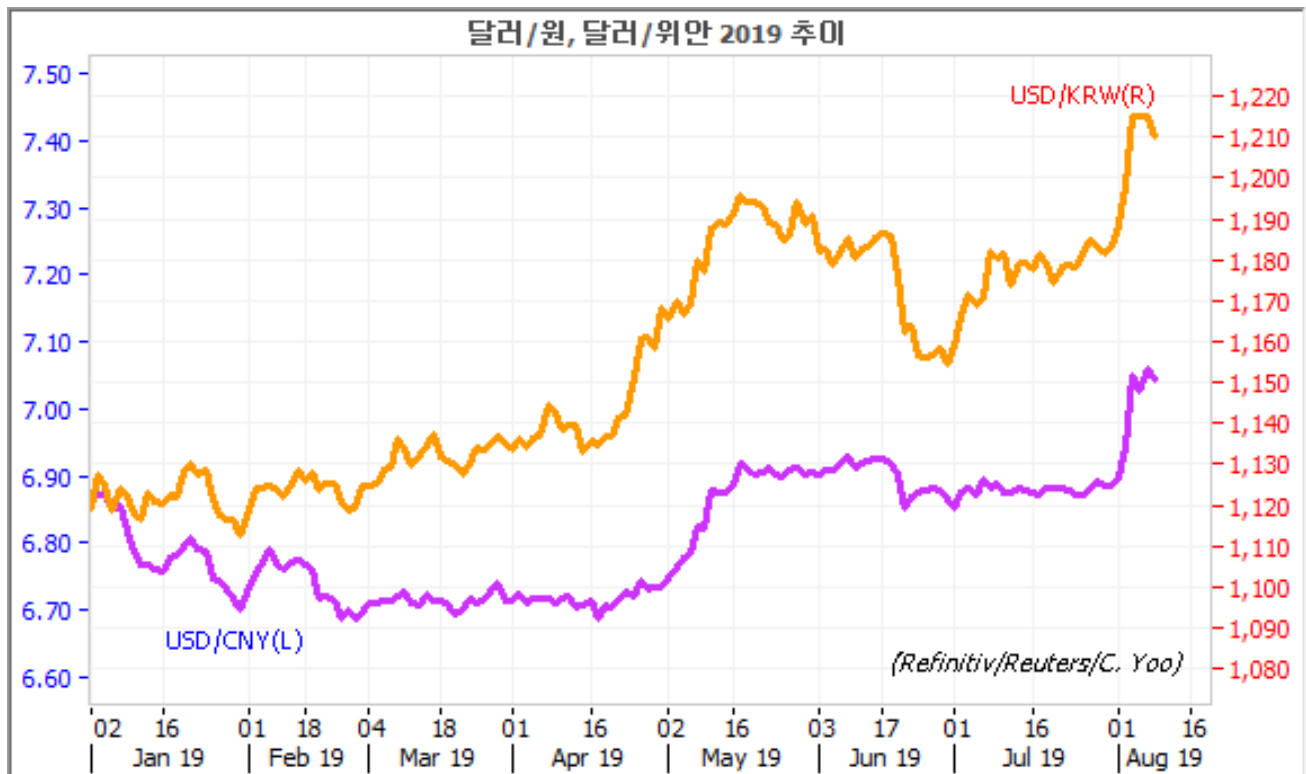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